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서쪽 중심부에 자리한 순천만연덕에서 지난 28일 오후 인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연덕을 중심으로 주박람회장, 순천호 수공원, 바위정원 등 테마공원,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 정원, 비오톱 습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람객 400만... 교통·숙박·음식 대책 '박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D-50 준비 상황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여부는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의 수로 가늠할 수밖에 없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에 연인원 400만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교통·숙박·음식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하루 2만2000~2만3000명이 꾸준히 박람회장을 찾았을 때 가능한 수치다. <티켓 62만매 판매80만장 목표=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간 입장이 가능한 시민권(성인 6만원)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권 소지자에게는 나안음식, 드라마촬영장, 순천자연휴양림 등에 무료 입장, 선암사와 송광사 등 나머지 관광지에 50%의 할인 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을 주기로 했다. 시는 전남지역 지자체는 물론 서울 등 타 지역 지자체, 금융기관이나 기업, 약사회 등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하면서 전체적으로 티켓 판매 목표치

시민권 티켓 소지자 주변 관광지 50% 할인 진입로 공사 월내 마무리 시내 음식점 친절교육

인 80만장 가운데 62만매를 판매했다. 이후 시민권을 중심으로 18만장을 박람회 개장 전까지 모두 팔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현장 판매를 통해 320만장을 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진입로 공사 이달중 마무리=순천의 교통여건은 다른 도시에 비해 좋은 편이다. 시 외곽에 나들목이 3곳이 있어 전남 각 지역은 물론 경남지역에서도 쉽게 박람회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 이달 안으로 연향 호반아파트~체육관 4거리(1700m), 오산마을 진입로 공사(391m), 남송릉길 확포장 공사(528m) 등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진입로 공사도 마무리된다. 하루 2만명 이상의 입장객을 수용하기 위해 박람회 조직위는 1만3982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마련했다. 박람회장 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카트기(23인승) 7대를 마련했다. <저렴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마련=관람객들이 박람회장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순천 특산물로 만든 도시락 '순천미안밥상'을 4000~7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입장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박람회장

중심에 남도의 전통음식을 주메뉴로 하는 남도식당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카페, 매점 등 43곳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밖 순천시내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개장 이후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소가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을 통해 음식점 306곳을 지정했으며, 그 외 일반식품점객업소 7000여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특별대책팀도 운영하고 있다. <바가지요금 즉시 행정처분=박람회 조직위는 호텔 5곳을 비롯한 471곳의 숙박시설을 지정해 6860객실을 확보, 하루 1만60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제 수준에 걸 맞는 안전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모델을 중저가 고급 숙박 시설인 가족형으로 전환하고, 자연을 벗삼아 즐길 수 있는 오토캠핑장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도농통합도시인 순천은 농촌 지역에 만들어 놓은 펜션, 한옥 등이 있어 숙박하면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단체 숙박은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 에코촌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엑스포 등 기존 박람회 때마다 문제가 된 바가지요금 예방을 위해 입장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여관, 모텔 등은 적발 즉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대선 책임인사 전대 출마 안돼"

문희상 민주당비대위원장 기자 간담회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혁신적인 공천 방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오전 간담회에서 "혁신위에서 공천 쇄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중앙당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당원 정비에 나설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진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당원이 근간이 되는 쇄신 공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과 관련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하지만 기어코 출마하겠다는 막을 수는 없으며 결국 선거 결과가 책임 여부를 판가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문 위원장은 "당 혁신위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여야(정계특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안철수 신당'과 관련, 문 위원장은 "안철수 전 교수와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는 물론 새 정치에 대한 합의를 이룬 동지적 관계"라며 "민주당의 문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열려있으며 결정은 안 전 교수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안 전 교수의 신당 창당은 야권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공멸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안 전 교수에게 신당 창당은 악마의 유혹이며 이를 권하는 사람도 결코 안 전 교수를 돕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60년 전통 야당의 문패를 갖고 있어 상수가 될 수 있으나 그 쪽(안철수 신당)은 변수밖에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4월 재보선에서 진보 정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 문 위원장은 "국민이 동의하는 대의명분과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성찰과 혁신의 모습보다는 당내 갈등만 보인다는 지적에 "열핏 보기에만 갈등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합의를 이뤄간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과감한 당내 혁신을 통해 다시 비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까지 평생에 세 번 물어봤는데 한 번은 DJ-Y의 후보단일화 실패 당시, 참여정부 대북송금 특검 과정, 마지막으로 대선 패배 이후 광주를 방문했을 때"라며 "온갖 고난 속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켜온 호남 민심이 정말 면목이 없었으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야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처럼 민주당에 호남은 '야무호남 시무민주당'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며 근간이자 젖줄"이라며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두

시작부터 가관이군

민주당 안팎 때아닌 '밤 논란'

■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싸고 이견

강운태 시장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해야"

박지원 "방해가 아닌 좋은 밥 짓게 하려는 것"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 내외에서 때아닌 '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강 시장은 지난 27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 "식당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 밥이든 짓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표결을 통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 시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대외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심경을 토로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는 밥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밥을 태우지 말고 좋은 밥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은 5년간 태운 밥을 먹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의 발언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끝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면 오히려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 시장 발언 논란을 떠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며 "이런 것이 진정한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아투어클럽과함께 대한항공 타고 저렴하게 떠나는 즐거운 제주여행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봄 여행 특가 상품

저렴하게 떠나는 버스정기투어

- 11 제주 新관광 일일특가 3일 ₩249,000~**
(관광열차, 코끼리랜드쇼 공연)
- 12 제주 최고일일정 육해공투어 3일 ₩319,000~**
(집수합+우도유람선)
- 13 제주 고품격일일정 웰빙투어 3일 ₩339,000~**
(더마파크공연+매직아일랜드+특석식2회)

명처리 관광명소탐방 3박4일 ₩149,000~
[2/25, 3/4, 3/11]

등산 한라산등반 1박2일 ₩149,000~
[3/3]

•포함사항: 왕복항공, 숙소(1박/2박/3박-합숙), 식사(일정메뉴), 관광요금, 유가할증료
•불포함사항: 기사/가이드(1인10,000), 선택관광, 식사세크

에어카텔 자유여행(제주2박3일) 주중출발!!

제주관광지함인쿠폰, 주말항공, 숙박, 렌트카 www.mongjeju.com

팬션	2인실 319,000~	4인실 249,000~
관광호텔	2인실 289,000~	4인실 239,000~
칼호텔	2인실 369,000~	4인실 309,000~
리조트급	2인실 339,000~	4인실 269,000~

•포함사항: 주중왕복항공, 숙소(2박), 식사(조식), 유가할증료
•불포함사항: 주차보험, 주유비용

제주 골프 특가 팩 (왕복항공1박2일)

출발일 3/3, 3/10 ₩299,000~

•포함사항: 왕복항공, 숙소(편선4인실), 캐슈박스+편리산(18홀2회), 왕복수송
•불포함사항: 유가할증(52,200), 기사/가이드, 식사

www.itourclub.co.kr
김경호 팀장 062) 382-8201